

1.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구역인사위원회 결과 : 박치호 목사(부분목사), 안준형 전도사 청빙의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3. 부임하는 교역자 가정을 위한 기도요청 : 다음 주일은 안준형 전도사님께서 부임설교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도사님 가정의 정착과정과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준형 전도사(예배, 중고청 공동체), 허세현 사모(EM교회학교), 안예영(15세), 안예희(8세)

4. 故박정인 권사 추모예배 : 교회 출발 오후 2시(1949 Washington Valley Road Martinsville, NJ 08836)

5. 식사섬김 신청 : 식사봉사(재료비 아씨상품권 \$100), 기념일 등 식사섬김(\$250) 식당에 붙여 놓은 게시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파송선교사 복귀 : 김단영 성도

예배 및 모임시간 안내

주일예배	주일오전 11:00 대예배실
교회학교 예배(초등생까지)	주일오전 10:00 소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7:30, 소예배실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6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PGS 바이블 아카데미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통역어플 사용안내

App Store에서 "Captionkit"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통역 및 자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선한목자교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

GOOD SHEPHERD METHODIST CHURCH OF PHILADELPHIA

담임목사 박지훈

ADDRESS 1490 Dillon Rd. Ambler, PA 19002

TEL (215) 654-9101

HOMEPAGE philagsmch.org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경배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외 2곡
기도	김단영 성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환영인사/교회소식	박지훈 목사
공동체 찬양	“너를 위해 기도해”
성경봉독	누가복음 24장 13-35절
말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세 가지”
결단찬양 및 봉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찬송가 338장)”
축도	박지훈 목사

창세기 강해45	창세기 29:1-35
----------	-------------



누가복음 24:13-35 새번역

13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 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22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26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28 그 두 길손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29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30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4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예배담당 및 순서안내

	7 월 26일	8월 2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3일
대표기도	김단영 성도	공동기도문	김종국 장로	공동기도문	윤희주 권사
봉헌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안내봉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